

TV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배우 황정민(왼쪽부터), 김영애, 문정희, 염정아, 천우희, 도경수, 부지영 감독.

‘비정규직·부당해고’에 맞서다... 영화 ‘카트’

염정아 “정희” 연기하면서 분노 느껴 부지영 감독 “이 시대 꼭 필요한 영화”

“가정과 일밖에 몰랐던 한 여자가 어느 날 부당해고를 당한 뒤 맞서 싸우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흥미롭고 공감이 됐어요.” 30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의 CGV압구정에서 열린 새 영화 ‘카트’ 제작보고회에서 만난 염정아(42)는 “연기하면서 분노를 느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염정아가 분한 한정희는 한국 대표 마트인 더마트의 비정규직 직원이다. 두 아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에 “반찬 값이 아니라 생활비를 벌러” 마트에서 일하는 한정희는 정규직이 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성실한 인물이다. 영화는 한정희를 비롯해 갑자기 부당 해고를 당한 더마트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정이나 동료에 등을 누끼는 모습을 담았다. 상업 작품으로서의 처음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영화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제작됐다. 영화를 연출한 부지영 감독은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사안인 비정규직 문제를 극화한 휴먼 드라마”라고 설명했다. “지금 이 시대에 꼭 만들어져야 하는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리얼리티를 담으면서 영화적인 드라마도 완성해야 하는,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부지영 감독)

이번 영화는 염정아 스스로 “대기실이 여당 같았다”고 부담할 정도로 여자 배우 일색이다. 한정희와 함께 적극적으로 투쟁을 이끄는 비정규직 동료 헤미는 문정희(38)가 맡았다.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는 헤미는 복직을 조건으로 내건 사측의 회유에 고민하게 된다. 문정희는 “어떻게 보면 있을 법한 일인데 제 삶으로 다가왔을 때 오는 충격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애(53)도 “내 청소년 20년에 약속한 한 번 제대로 내뿜는다”고 투쟁에 나서는 청소년 대표 손례로 등장한다. “지금껏 정치색을 드러낸 적도 없었고 보수 성향에 가깝다고 생각했기에 시나리오를 보기 전엔 좀 망설였다”는 김영애는 “상상조차 못했던, 사회적인 제일 약자 계층의 이야기를 알게 됐고 다른 사람들도 이를 알았으면 해서 출연했다”고 설명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일을 계기로 얼마 한정희의 투쟁을 이해하는 아들 태영은 ‘대세’ 아이돌 그룹 엑소의 디오(도경수)가 맡았다. 도경수는 이번 작품으로 영화에 데뷔했다. 염정아는 촬영 분위기에 대해 “실제로 현장은 정말 끈끈했다”면서 “한쪽에서 연기하고 있으면 촬영하지 않는 다른 쪽에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요즘 영화가 세상을 많이 바꾼다고 생각해요. 작게나마 저희가 애써서 만든 영화가, 소수 주목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도움 용기와 힘이 됐으면 합니다.”(문정희)

EBS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time and program titles.

EBS Plus 1 and EBS Plus 2 program schedule tabl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일(음 9월 9일 丙午)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김동률 6집 ‘동행’ 8개 음원 차트 1위

멜론·소리바다 등... 수록곡 ‘줄 세우기’

싱어송라이터 김동률이 1일 공개한 6집 ‘동행’이 음원차트에서 파란을 일으켰다. 6집의 타이틀곡 ‘그게 나야’는 멜론, 엠넷닷컴, 올레뮤직, 네이버뮤직, 다음뮤직, 벅스, 지니, 소리바다 등 8개 사이트의 실시간차트에서 1위를 석권했다. 그중 올레뮤직, 네이버뮤직, 벅스, 소리바다에서는 1~10위, 엠넷닷컴, 다음뮤직, 지니에서는 1~9위까지 수록곡들이 차트를 장악하며 ‘줄 세우기’를 했다. 소속사 뮤직팝은 “‘동행’ 앨범은 이 순간의 김동률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이다”며 “한 뮤지션이 20년의 시간 동안 변하고 발전한 것, 그럼에도 변치 않은 것이 만난 결과물”이라고 소개했다. 눈에 띄는 건 앨범의 노랫말들이 마치 시와 같다는 것이다. 소속사는 “김동률은 유행어나 속어는 배제한 채 가사의 운율에 맞추고 노래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명확한 흐름과 완결성을 가진 이야기를 썼다”며 “대중의 귀를 억지로 끌기 위한 장



치 없이 허술하지 않은 작곡과 편곡으로 노랫말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앨범에는 이효리의 남편인 기타리스트 이상준, 가수 존박 등이 참여했다. 앨범 작업기를 공식 사이트에 공개해온 김동률은 이상준이 네 곡의 기타 연주에 참여했으며 그가 있는 제주에서 녹음했다고 밝혔다. 김동률은 “낮에는 상순씨와 (이)효리의 일상에 함께 섞여서 즐겁게 보내다가 어둑어둑해지면 슬슬 녹음을 시작하곤 했다”며 “늘 치밀하게 온 신경을 곤두세워가며 진행하던 서울에서와는 달리 녹음 자체도 편안하게 즐기면서 여유 있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6집 발매와 함께 김동률은 ‘동행’이란 타이틀로 광주를 비롯, 9개 도시를 도는 전국투어를 개최한다.

최진실 아들 환희... 희망 찾아 떠난 여행

EBS 스페셜 ‘인생수업’ 오늘 첫 방영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가 24년 만에 리메이크되면서 고(故) 최진실의 생전 사랑스러웠던 모습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최진실이 세상에 남기고 간 아들 환희(13·사진)가 EBS TV 스페셜 프로젝트 3부작 ‘인생수업’에 출연한다. 2일부터 3주간 매주 목요일 밤 9시50분에 방송될 ‘인생수업’은 출지에 엄마에 이어 외삼촌 최진영, 아빠 조성민까지 잃은 환희가 절망을 딛고 희망을 찾는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았다. 환희와 이번 여정을 동행하는 이는 7년 전 크레인 전복사고로 동생을 잃은 가수 요조(33). 혈육을 잃은 슬픔을 공유하는 둘이 함께 세상 밖으로 여행을 떠난다. 그 길에서 사지가 없는 행복 전도사 닉 부지치,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9·11 테러에서 살아남은 마이클 힌슨, 해변에서 10년째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 아마도르 등을 만나 인생의 교훈을 배운다. 1부 ‘환희의 첫 외출’이 방송되는 2일은 최진실이 우리 곁을 떠난 지 6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엄마가 떠난 지 6년, 어느덧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된 환희에게 사춘기가 찾아왔다. 요즘 들어 부쩍 많습고 좋고 감성표현도 하지 않는 손자가 격정인 할머니와 자꾸만 멀어져 가는 아빠가 불만인 동생 준희를 떠나 환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다. 환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다. 환희는 요조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립공원 요세미티의 비숍 패스로 떠난다. 아빠와 함께했던 숨어 낚시도 혼자서 하니 생각처럼 쉽지 않아 외기 소침체지는 환희는 다시 용기를 내 생애 첫 밭 짓기에 도전한다. 2부 ‘마음의 지도 그리기’에서는 가족이 죽었을 때 심정을 처음으로 털어놓는 환희와 요조의 고백을 들을 수 있다. 환희는 일이 많아 바쁜 와중에도 자신을 꼭 안아주던 엄마를 떠올리며 엄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느꼈던 감정을 처음으로 털어놓기 시작한다. 요조는 언니의 생일에 선물을 살 돈이 없어서 편지를 써주던 동생이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한다. 3부 ‘인생의 맨토 찾기’에서는 엄마처럼 배우가 되고 싶다는 환희가 꿈의 무대인 할리우드를 밝는다. 그리고 이곳에서 닉 부지치와 만난다. /연합뉴스